

기획특집

— 녹색성장과 젠더 —



- 녹색성장과 젠더
홍 승 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녹색 성장과 커뮤니티 거버넌스
조 영 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녹색성장과 젠더

홍 승 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들어가며

현재 전 세계는 환경위기와 경제위기를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위기는 우리 삶의 안전과 질을 위협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서구국가들은 녹색성장 전략을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수용하고 있다. UNEP는 2008년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를 제시하면서 환경적인 투자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빈곤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성장정책 시대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녹색성장정책은 전지구적인 기조(Global Framework)가 되고 있다.

한편, 녹색성장이 환경보존과 경제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젠더관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여성은 남성과 함께 환경위기와 경제위기의 경험자임과 동시에 이들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주체이며, 위기의 극복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여 정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 개발의 과정,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욕구와 가치, 경험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발전과정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동시에 정책집행의 결과들이 어떻게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는 여성들의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녹색성장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올바른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시론적 차원에서 젠더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여 녹색성장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논의과정에서 왜 젠더의 관점이 필요한지, 그리고 젠더관점은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영역과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녹색성장 논의가 보다 성평등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여성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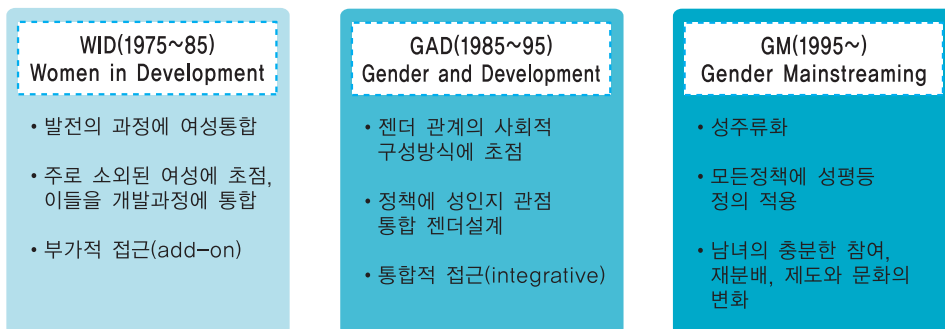
발전모델에 젠더를 통합하는 방법은 여성과 발전(Women in Development, WID),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 GAD)을 거쳐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GM) 등의 과정을 통해 발달해 왔다.

우선 WID는 발전의 과정에 여성을 통합시킴으로써 경제발전과 동시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후 1985년 제3차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 새로운 여성발전전략으로 GAD 전략이 채택되

었다. 앞서 WID 전략이 기존정책에 여성을 부가시키는(add-on) 접근으로서 발전의 틀 안에서 자원재분배와 남녀불평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GAD 전략에서는 젠더관계의 사회적 구성방식에 초점을 두고 발전의 과정에 성인지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시킬 것을 강조한다(모저, 1993).

한편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성주류화(GM) 전략을 채택하였고, 유엔은 각국 정부와 기관들, 정책담당자들에게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적인 시각을 주류화하는 가시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주류화는 모든 정책에 성평등의 정의를 적용하여 남녀의 충분한 참여,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강남식, 2001). 성주류화 정책은 첫째, 주류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둘째,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며, 셋째, 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Corner, 1999).

〈그림 1〉 여성발전 패러다임의 변화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정부의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은 저탄소정책과

녹색기술, 녹색일자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생활혁명과 교육·문화정책, 환경친화 세제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저탄소정책과 녹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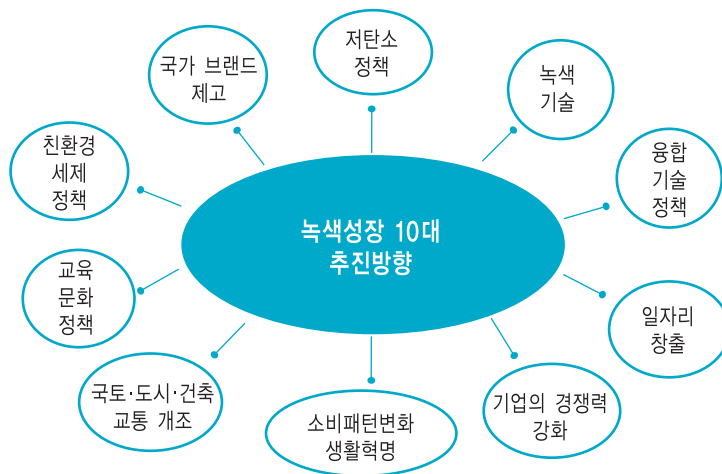
술, 녹색일자리는 현재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영역인 기술과 일자리영역으로 대표된다. 환경친화 세제정책은 국가수준에서 시행할 조세정책이며,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녹색성장정책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한편 “소비에서 의식주까지 바꾸는 생활혁명”, “교육·문화정책”은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개인의 생활공간에서 개인적인 생활방식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들 정책은 경제영역이나 환경의 영역에서 수행되기보다는 여성과 가족이 가장 밀접

하게 연관되고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는 기술과 에너지, 일자리가 녹색성장의 중요한 영역으로 제시되는데 반해, 여성과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생활세계, 생활공간, 지역사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후에서는 기술·에너지, 일자리 논의에 대한 젠더관점에서의 고찰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



기술·에너지 분야

기술·에너지 분야는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남성적인 분야로 간주되어 왔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는 젠더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며,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은 여성들에게는 더욱 생소한

영역이며 여성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든 발전전략에 젠더이슈를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성주류화(GM) 전략에 의하면 에너지분야에도 젠더관점을 통합시키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것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의 여성의 욕구와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에너지 정책에서 젠더분석을 시도하는 노력들

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Cecelski, 2000).

첫째, 왜 에너지 분야에 젠더관점이 필요한가?

둘째, 왜 여성들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나?

셋째, 여성들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재생에너지 기술은 여성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와 관련 하여 여성의 두가지 역할에 기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에너지 소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고려이다. 즉 여성들이 가정 내에서 가족들을 위해 가사 노동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연료가 여성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때에는 소비자인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성민감성(gender sensitiveness)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 여성들의 경험과 욕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에너지 분야는 거대 규모의 자본집약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적극적인 참여자,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국제적인 여성조직 활동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성기술자들의 양적, 질적 확산을 위하여 에

너지 분야에 여성들을 특별히 훈련하는 젠더훈련(gender training)이 필요하고¹⁾, 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젠더와 에너지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에너지분야의 여성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Cecelski, 2000)²⁾.

일자리 분야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녹색성장정책은 친환경 일자리창출이라는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95만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과연 녹색성장 정책 내 여성일자리는 무엇이며, 이들의 규모는 어떠한지, 여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등 일자리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볼 때, 현재까지의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는 특별히 젠더와 관련한 관심과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여성노동력을 투입할 적절한 일자리개발이 필요하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개발되고 제시되고 있는 녹색일자리는 거의가 남성기술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자리를 개발하는 정책입안에서부터 젠더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만약 녹색일자리 정책이 남성중심으로 기본구조가 짜여지고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특히 여성은 바이오가스, 수소전지, 태양열전지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성훈련의 필요성, 여성의 제한된 이동성으로 인하여 초기 비용은 고비용이 되지만, 여성들이 얻는 높은 신뢰도와 낮은 직장이탈율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비용이 된다(Cecelski, 2000).

2) 보다 자세한 논의는 Cecelski(2000)를 참조할 것.

〈표 1〉 녹색인프라 분야와 일자리

녹색 인프라 분야	대표 직종
건물에너지 합리화	전기기술자, 냉·난방기 설치기사, 목수, 건축기기 기술자, 단열재 기술자, 보조목수, 산업트럭 운전수, 건축관리자, 건물점사관
대량수송 철도화물수송	토목기사, 선로건축 기술자, 전기기술자, 용접공, 금속가공 기술자, 엔진조립 기술자, 버스 운전사, 배차원, 기관사, 기차차장
스마트 그리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 엔지니어, 전자기기 조립기술자, 전자기기 기술자, 기계기술자, 팀조율자, 건설 근로자, 운영전문가, 전력선 구축과 수리기술자
풍력	환경엔지니어, 철강노동자, 기계수리 기술자, 판금기술자, 기계운전자, 전자기기 조립기술자, 건축기기 전문가, 산업트럭 운전수, 산업생산 관리자, 일선 생산 감독관
태양열	전기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산업기기 기술자, 용접공, 금속가공 기술자, 전자기기 조립 기술자, 건축기기 기술자, 설치보조 기술자, 노동자, 건축관리자
개선된 생물연료	화학공학 기술자, 화학전문가, 화학기기 전문가, 화학기술자, 믹싱기기 전문가, 농업노동자, 산업트럭 운전수, 농업상품 구매자, 농업과 임업감독관, 농업감시관

*자료 : Pollin(2008)

둘째, 일자리 창출의 과정에서 사회적 계층과 성별간의 재분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복구와 재투자계획(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의하면 2010년까지 300만개의 일자리를 보호 또는 창출한다는 선거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집행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계획이 제대로 가동되면 여성고용 창출효과가 42%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인종, 계층간의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경제위기로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은 건설, 제조업, 소매업, 유흥업의 흑인과 히스태닉계의 저학력 청년층 남성노동자들의 고용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동시에 성별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전체 평균 성비가 “50대 50”에 근접하도록 다양한 산업분야의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강

선미, 2009).

셋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저급의 저임의 일자리에 집중되지 않도록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녹색일자리는 적절한 보수와 안전한 작업조건, 일자리의 안정성, 전망, 노동권 등을 만족시키는 괜찮은 일자리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UNEP, 2009).

넷째, 물량적 생산이 아닌 인적자본의 생산을 위하여 교육, 보건, 아동돌봄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여 이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녹색일자리의 범주를 도로, 교통체계 개선, 기술과 에너지의 생산으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할 문제는 녹색일자리라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일자리의 상당부분은 이미 일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이다. 최근의 브리프에 의하면, 녹색일자리는 새로운 기술과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통적으로 요구되는 요건들, 기초기술과 능력, 자격증 등이 필요한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Pollin, 2008; Cleary & Kopicki, 2009). 따라서 녹색일자리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개발 및 창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일자리를 녹색일자리 속으로 적절히 편입시켜서 일자리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사회

1) 생활공간의 변화

첫째, 친환경도시 건설과 젠더관점의 통합이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생활공간의 재설계가 시작되어서 친환경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며, 다양한 녹지, 공원 등을 충분히 조성하고 최대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로 불리는 신재생에너지 마을을 조성하여 인위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태양광이나 지역 등 재생가능한 자연에너지를 이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 건축설계로 에너지 절약효과까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다만 향후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도시의 건설 및 운영의 과정에서도 여성들의 참여는 어떠했으며, 여성들의 욕구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젠더의 관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의 교통체계를 사람을 위주로 하는 보행권의 확립,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한 녹색교통체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녹색교통은 환경친화형, 공간절약형, 에너지 절약형, 평등한 교통수단으로 이해되며, 자동차 의존도를 낮추면서 생태지향적인 도시 공동체를 구축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나 독일 등에서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남성에게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사용하며, 자전거나 도보 등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양희 외, 2007). 따라서 녹색교통체계로의 변화가 여성들의 욕구와 경험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떠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들이 일과 육아, 가족돌봄 등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인프라가 구축되는 생활공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의 생활공간으로서 요구되는 중요한 요건은 안전의 문제이다. 안전은 생활환경의 안전과 폭력·학대 등 물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유해환경 및 유해식품으로부터의 여성건강과 안전의 위협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2) 생활방식(life style)의 변화: 소비자로서의 의식과 행동

현재의 성별분업체계 하에서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세대간(노인부양과 아동양육), 세대내(가족을 위한 가사노동) 재생산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책임은 지역사회에서 소비와 재생산영역을 통해서 주로 수행된다. 특히 가족영역은 여성들이 가족

의 건강과 생활을 위해 가장 많이 관심을 두는 영역
이어서 여성의 기본적인 생활과 노동은 가족과 지역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첫째, 여성들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녹색소비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서 녹색소비자의
역할은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가족이 먹는 식품
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사회, 정치,
문화, 환경, 교육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
로 행사되고 적용될 수 있다.

둘째, 녹색소비자로서의 역할은 단순히 친환경제
품을 구매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기업들로 하여금 친
환경제품을 생산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변
화시키고 건전한 소비자의식과 태도를 행사하는 방
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의 힘과 책
임성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진, 성
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공동육아와 생협운동을 들 수
있다. 이 운동들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경과 안
전, 그리고 아이돌봄의 문제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
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역사회의 안전한
양육문화, 안전한 먹거리 문화, 가족친화적인 지역
사회 조성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홍승아·김혜
영·류연구 외, 2007). 결과적으로 이들은 돌봄과
신뢰, 그리고 협동을 기반으로 한 생활공동체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키워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이들 일련의 변화들을 통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밀착된 여성과 가족의 삶을 실현하게 되
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모델이 된다.

나가며

녹색성장정책은 환경과 경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세계 공통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
지구적 논의와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성장정책
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하며, 성평등한 발전전략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환경친화, 경제발전, 성평등
이라는 세가지 원칙이 담겨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녹색성장정책이 추구하는 기술 및
에너지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
관점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술 및
에너지의 개발과 일자리 창출의 과정의 일부분에 여
성을 단순히 “부가”(add-on)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가능한 기술과 에너지,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여성들에게 특별히 젠더훈련
을 제공하여 여성들에게도 기회와 자원에 대한 동등
한 접근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여성과 가족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녹색성장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
성이 녹색성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피할 경우 녹색성장정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이다.

참 · 고 · 문 · 헌

- 강남식(2001). "성주류화 정책과 생산적 복지". 한국여성연구소. 『여성
과 사회』 12
- 강선미(2009). "오바마정부의 여성친화적 정책". 여성신문. 2009. 1. 30
- 김양희(2007).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주류화 전략개발』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노동부(2008).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Green Job)".
노동부 고용정책브리프. 2008. 8. 13
- 모저, 캐롤린(1999). 장미경외 역.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홍승아 · 김혜영 · 류연규 · 相馬直子 · 조순주 · 진미정(2007). 『가족친
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Cecelski, E. (2000). "The Role of Women in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German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Cleary, J. & A. Kopicki(2009). "Preparing the Workforce for a
'Green Jobs' Economy". John J. Heldirch Center for Workforce
Development research brief, February 2009
- Corner, L. (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 Pollin, R. (2008).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의 녹색정책".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2008.12
- UN ESCAP(2006). Green Growth at a Glance

녹색 성장과 커뮤니티 거버넌스

조영미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I.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사회에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추구하는 녹색 성장 정책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녹색 성장 담론은 기후보호,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활용과 같이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부에서 녹색 성장은 도시개발, 관광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환경친화적인 리조트 조성, 생태 관광단지에 eco-label 붙이기, 슬로시티(slow city) 만들기를 추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녹색성장은 아직도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인다. 녹색 성장을 위한 10대 추진 방향을 보면 에너지 부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마치 발전 패러다임에서 환경 분야로 경제성장의 영역으로 바꾼 것 같다. 더구나 녹색 성장 패러다임은 성장과 환경보존이 당위적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전반적인 사회 변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 사회 전반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주택, 교통, 환경 산업, 행정 계획 등 다방면에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녹색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전의 사회구조, 지향 가치, 사회운영방식, 자원 및 토지 이용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왜 녹색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 녹색 성장의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녹색 성장을 이룬 도시 혹은 국가, 공동체는 어떠한지, 이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를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녹색 성장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잠재력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취지에서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커뮤니티의 특성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 거버넌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녹색 성장이 목표로 하는 도시, 혹은 공동체의 그림을 그려보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 특히 여성들의 자발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참여방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 성장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드러내고 녹색 지역사회, 여성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조건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녹색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1. 녹색 커뮤니티란?

녹색 성장은 단순히 환경 분야에서의 경제성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다. 녹색 성장은 도시·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 즉 녹색 커뮤니티 구성을 목표로 한다.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도시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곳, 주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도시, 정신적인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살기 좋은 건축 환경이나 살기 편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 자원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도 배려하는 공정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Berke, 2008). 플랫폼은 이 외에도 공동체 사람들끼리 소속감을 느끼고 이웃친화적인 무엇보다도 재미있는(fun!)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Plat, 2007).

녹색 커뮤니티는 자연의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커뮤니티도 자연 생태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하고 지역 환경을 보존한다. 천연자원과 자연 생태계에 보존을 위해 저탄소 도시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 건축물과 친환경 녹색공간을 확보한다. 녹색 커뮤니티에서는 자연 생태계가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쓰레기를 버리거나 자연적인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하수를 정수하여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다.

녹색 커뮤니티는 물리적으로는 도시환경에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체제를 갖춘 안전한 도시이자 정보화가 실현된 U-City, 모두가 걸어 다니기 편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Design)로 그려볼 수 있다.

가치 측면에서 녹색 커뮤니티는 서로에 대한 다름을 인정하는 곳,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을 포용하는 곳이다. 녹색 커뮤니티는 다 계층적인 사회 구성, 즉 소득,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라이프스타일 등의 면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입지를 고려하고 차별과 불평등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안정된 경제, 친환경적 생태도시, 충분한 사회 복지시설,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곳이다.

2. 녹색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녹색 커뮤니티의 모습이 이렇다면 녹색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친환경적

이고 서로가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식에도 전환이 필요하다.

녹색 커뮤니티의 시민들은 활동적이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사안들에 대해 관심과 책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우리들 중 다수는 자기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참여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역 문제에 대해 비판하기는 해도 자기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녹색 커뮤니티가 된다는 것은 수동적이고 책무성이 결여된 주민 의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확보해야 하고, 아래로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내의 절차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정부 혹은 지역정부는 지역 및 커뮤니티의 현안을 주요 정책 어젠더로 채택해야 하고 직접적인 주민 참여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정책 기획 및 개발, 추진단계에서부터 커뮤니티와 지역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보다 지역사회 활동과 시민의 책무성에 기반하여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라코는 주민중심의 정책(citizen-focused policing), 커뮤니티, 마을 차원의 정책(neighborhood-level policing)으로 전환이라고 강조하였다(Raco, 2007).

이러한 정책은 정부 측에도 유용한데 지역의 안전 문제나 현실적인 주민의 수요 파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 역시 지역 생활공간 개선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양질의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커뮤니티 내에 민주적이고 대표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 위로부터는 장기적,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아래로부터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녹색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거버넌스는 지역단위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도 지역 단위로 주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실제로 지역의 핵심리더로 성장하는 인적자원은 바로 여성이라고 한다.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녹색 커뮤니티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활동 영역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참여, 오염방지 및 재활용, 교통정책, 토지사용(도심과 주거지, 상업지구, 산업지구, 농업지구 등의 설계), 공공시설(학교, 공원, 도서관, 여가시설, 경찰서, 119소방 및 응급구조, 상수도, 하수도 등), 에너지보존, 환경감시, 건강과 환경건강, 자연재해, 지역유산 발굴 및 보존 등의 영역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www.epa.gov). 이 내용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영역들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제시하고 있다.

III. 성별 화된 커뮤니티 거버넌스

1. 커뮤니티 거버넌스와 여성

녹색성장을 이루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표 1〉 미국 그린커뮤니티 시민참여 실천방안

구 분	내 용
목 표	거주민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증진 지역사회 사안에 대해 정보제공 및 의사결정 참여확대
목 적	지역사회 유권자로서 등록 권유 및 참여 증대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젝트 참여 확대 학교 자원봉사자 확대 선거직 혹은 임명직에 적절한 후보 발굴 모든 연령에서 커뮤니티 참여 확대(10대, 젊은 부모, 빈둥지 세대, 노인들) 자기 이해를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웃 집단 발굴 및 훈련 자원봉사자가 커뮤니티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수동적, 반응적이 아닌 적극적, 선도적인 참여 유도 새로운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훈련 강화 사적부문, 비영리부문, 공적 부문이 통합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실 천 방 안	커뮤니티 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세미나 개최 사적부문, 비영리부문, 공적부문이 소통할 수 있는 포럼 개최 커뮤니티 사안에 대해 자원봉사자를 총원하고 이들과 대화 하기위해 신문 활용 커뮤니티 주민들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한 공공 도서관 체계 구축 커뮤니티 서비스의 형평성 증진 커뮤니티 자선기금 모집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기부하는 사람들 존중 갈등해소 절차 개발 지역정부와 협력하고 지역문제 해결할 수 있는 통로 개발 지역정부가 커뮤니티 필요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함 자선과 자원봉사를 위한 커뮤니티 재단 설립 민족과 인종의 다양성을 인식 학교 교과과정에 시민의 책임을 포함 지역 신문을 지역시민의 책임감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이용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 심어주기 지역의 참여와 발전을 기리는 활동들에 재정 지원

*출처 : green community(www.epa.gov/greenkit/civic.htm)

티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는 있으나 여성들은 여성적인 사안에, 여성적인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한다.

실제로 커뮤니티 실천에서는 성별로 적절한 이슈들이 있다. 가족이나 아동에 관한 이슈는 여성의 이

슈, 일자리나 사회 구조적인 자원과 관련된 이슈들은 남성의 이슈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공/사 이분법에 의해 여성은 가족과 가구에 관한 사안, 남성은 지역정부나 마을의 자원에 관한 사안을 다루어진다고 구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마틴에 따르면 지역사회 관심사에서 여성들은 안

전/정책과 보육/아동과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도 ‘마을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들은 주거단지/주택소유, 지역 인프라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참여 동기도 ‘자기의 직업과 관련이 있어서’가 높았다(Martin, 2002).

이러한 공/사 이분법은 커뮤니티를 조직화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유발한다. 커뮤니티 내 사안에 대처할 때 대립적이고 경쟁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남성적인 방식, 보살피고 힘을 북돋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여성적인 활동방식이라고 이분화하는 것이다. 남성중심적인 조직화는 남성 중심적이고, 공적인, 대립적인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화하며 마을에 권력을 쥔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다(Alinsky, 1989). 여성중심적인 조직화는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방식이다(Stall & Stoecker, 1998; Gittell et. all, 2000).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영역을 보면 가정이나 자녀 문제, 안전, 보육, 지역 환경 보전 등에 집중해있다. 반면 남성조직은 사회 전반의 문제들-경제, 사회, 정치 등 가정과 자녀 문제가 아닌 모든 사회 문제를 다룬다.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조직을 보면 남성이 없이 여성들로만 구성된 경우가 많고 남성과 함께하는 조직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환경 활동에서도 여성들은 지역사회 환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존재로 전제된다. 한 예로 보면 시민환경 교실의 교육교재를 살펴보면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그리고 있고 배출된 쓰레기

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일은 남성으로 그리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분리 배출과 같은 실천은 여성의 일로서 표현되고 공적 영역인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쓰레기 수거나 처리 관련시설의 운영은 남성의 일로 표현되는 것이다(김창연, 2007). 이러한 성별 이분법은 여성을 환경의 오염의 원인 혹은 환경 보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전제하여 여성은 교육 대상자, 실천자이지 환경활동에서 리더로 인식하기 어렵게 한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 세인트 폴의 Thomas-Dale Block Club 사례에서도 지역사회 범죄와 안전, 청소년과 노인문제, 주택문제 등과 관련된 지역사회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남성들에게는 ‘가정 문제에 책임을 지는 가장이 될 것’과 ‘가정을 돌보는 남성’이 될 것을 요구하였고, 여성들에게는 ‘가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는 여성’이 될 것과 ‘남성을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여성’이 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Martin, 2002).

따라서 커뮤니티 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여성들에게 지역사회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2. 성별화된 지역사회 참여 넘어서기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여성의 주체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기는 하나 성별화된 조직 운영에 의해 커뮤니티 거버넌스에서 주요 행위자(agent)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러나 커뮤니티는 공/사 이분법의 경계를 넘는 영역이기도 하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는

공적영역이자 시민의 영역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적영역, 즉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곳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공간의 의미는 커뮤니티 행위자들의 주장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내의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들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커뮤니티 공간은 시민의 공적인 영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정의 사안들을 다루는 사적인 영역이기도 하다. 커뮤니티 조직은 가정, 일, 지역성을 구분하기도 하고 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거나 혼재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마로울리는 커뮤니티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상호작용하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지원을 나누는 공간이었다고 한다(Marouli, 1995). 커뮤니티 공간은 '제3의 영역' (a third sphere)라고도 불리 운다. 임금노동과 비임금노동이 함께 일어나고 공적인 활동과 사적인 활동이 통합되는 곳이기 때문이다(Milroy & Wismer, 1994).

따라서 커뮤니티 내의 여성과 남성의 활동은 일정 정도 성별화되지만 커뮤니티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족과 개별가구의 관심사와 보다 넓은 사회정치적인 행위자 집단 혹은 사회정치적 구조와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는 가족관련 사안에서 출발해도 궁극에는 사회, 공적인 영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별화된 커뮤니티 활동도 공/사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고, 여성들의 행위성을 담보할 수 있다.

마틴은 Thomas-Dale Block Club 사례에서 지역사회 남성과 여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참여한다고 해도 지역사회 활동은 여성들을 커뮤니티의 행위자로서 위치화 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각 가정

에서 마약을 허용하지 않으면 커뮤니티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인 활동이 커뮤니티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에서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주민과 경찰이 함께 모임을 갖고 동네 공원을 행진하거나 10대 여름 캠프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성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커뮤니티의 공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여성들의 커뮤니티 참여는 여성적인 방식으로 여성적인 이슈로 참여한다 해도 커뮤니티라는 공적인 활동이 된다면 여성들에게 지역사회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문제는 여성들의 참여가 여성의 행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활동의 정치학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일 수 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을 환경친화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IV. 녹색 커뮤니티 거버넌스 사례 : 서울 여성 시민의 참여사례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이 주요 행위자로 드러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사례들을 다룬 보고들이 많다. 이를 살펴보면 도시 재생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참여한 사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등 해외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지역에서 여성들이 환경·안전과 관련한 이슈들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한 사례들을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여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그린 프로젝트’이다. 이 사업은 주민센터나 어린이집과 같은 지역기관과 여성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태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적인 생활양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한 화단’을 조성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연친화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서 커뮤니티 중심으로 여성 활동을 하는 단체나 주민자치센터 혹은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하여 공모를 해서 참여한 단체에는 친환경 나무 지렁이 퇴비함을 보급하고 생태친화 교육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공모를 통해 주민 센터 3곳, 어린이집 2곳, 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은 서울시 기관(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지역기관, 일반여성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커뮤니티 단위로 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공공부문, 지역여성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시작하여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지역단위에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서 지역사회 여성단체들이 ‘이주자 여성의 도심 내 텃밭 가꾸기’, ‘가구 리폼을 통한 나눔’, ‘DIY’, ‘놀이터와 자전거를 활용한 마을지도 만들기’ 등의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지역사회를 토대로 여성들이 그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커뮤니티 거버넌스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1〉 여성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 - 그린 프로젝트



친환경 나무 지렁이 퇴비함



주민 생태교육



지렁이 토분 체험·보급

두 번째 사례는 구로구의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사례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여성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한 여행 포럼단이 조직되어 있다. 여행 포럼단은 약 50명에서 10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역사회 일반여성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행 포럼단은 지역정부에서 지원하여 지역단위의 생활 불편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지역정부는 이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반영한다. 송파구에서는 골목길, 정류장, 보도 안전성과 편의성 실태조사를 하였고, 동작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정 전용시설 확보, 멘토와 멘티 결연, 다문화 유적지 탐방을 하기도 하였다.

구로구 여행 포럼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들이 불안, 불편, 불쾌 요인을 조사하였고, 신문기사들 중 공동주택에서 여성관련 범죄나 불편사항 기사를 수집하였다. 이 외에 공동 주택 주거여성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여성들이 아파트에

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들의 제안으로 구로구는 신축 공공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동작 인지 센서를 장착하여 조도를 높였고, 주차장 내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여성우선주차 구역을 설치하였다. 기존 CCTV에 양방향 음성전송 장치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하였고 지하 주차장에 짐 운반용 카트 보관대를 설치하였다. 엘리베이터는 투시형문을 제작하여 여성 이용자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



기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투시형으로 바꾼 엘리베이터 문



여성전용주차구역과 짐운반 카트, 그리고 밝은 지하주차장 조명

구로구 주거환경 개선과는 여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동주택시설개선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공공부문 신축공동주택건설에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사례는 지역여성과 지역정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지역여성

단체의 자생적인 지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공공부문과 커뮤니티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지역의 환경개선과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우리사회에서 커뮤니티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며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녹색과 지역,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하나의 맥을 이루며 논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특히 여성과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장과 환경보전, 친환경적인 지역을 만드는 데는 일반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단위의 여성들의 참여가 있어야만 녹색 성장 패러다임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고 사회 전반을 느낌과 회복의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사례들은 여성들이 커뮤니티 내에서 여성적인 사안들로 출발하지만 궁극에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며 지역사회 주체로서 설 수 있게 한다. 더구나 여성들의 참여가 지역사회와 지역정부를 함께 이어줄 경우 지역 여성의 활동은 행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만족스럽게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여성친화적인 지역사회 활동에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다면 여성의 커뮤니티 거버넌스로서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참 · 고 · 문 · 헌

- 김근태(2008).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시스템 개발 국제세미나". 『국토』, vol 320, 128-133.
- 김재현(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 vol 321, 29-35.
- 김창연(2007). 『서울시 환경교육정책 성별영향평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승현(2008).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성과와 과제". 『국토』, vol 321, 6-11.
- Alinsky, Saul(1989), Rules for Radicals, New York, Vintage Books.
- Berke, Phillip(2008), "The Evolution of Green Community Planning, Scholarship, and Practice: An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Journal of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4: 4, pp.393-407.
- Marouli, Christina(1995), "Women resisting (in) the city: struggles, gender, class and space in Athen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9, pp. 534-548.
- Martin, Deborah G.(2002), "Constructing the Neighborhood Sphere: gender and community organizing", Gender, Place and Culture, Vol. 9, No. 4, pp. 333-350.
- Milroy, Beth Moore & Susan Wismer(1994), "Communities, work and public/private sphere models", Gender Place and Culture, 1, pp. 71-91.
- Platt(2007), Humane Metropolis: People and Natu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City
- Raco, Mike(2007), "Securing Sustainable Communities: Citizenship, Safety and Sustainability in the New Urban Planning",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14(4): 305-320.
- Stall, Susan & Stoecker, Randy(1998), "Community Organizing or Organizing Community?: Gender and the Crafts of Empowerment", Gender and Society, 12, pp. 729-756.